



◆ 뮤지컬 '선덕여왕'이 내달 5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다. 사진은 쇼케이스 공연 장면.

'선덕여왕' 뮤지컬로 본다

내달 5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려

을 향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은 드라마에 '선덕여왕'을 빼고 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시청률 46.7%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만들어 최고 인기드라마의 위치에 오른 '선덕여왕'이 '뮤지컬 선덕여왕'으로 다시 탄생한다.

2010년 1월 5일부터 31일까지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는 화제작 '선덕여왕'을 뮤지컬로 다시 제작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뮤지컬은 드라마가 초기부터 기획해 탄탄한 준비기간을 거쳤다.

특히, 국내공연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겨냥해 만든 작품으로,

로, 정통사극에서 보여주는 고품격 스토리와 현대적이고 글로벌화된 표현기법을 도입했다.

무대 미술 역시 그동안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디자인으로 구상했으며 특히, 최첨단 LED로 만든 침상대가 등장한다.

아울러, 개기일식 장면의 태양은 '뮤지컬 라이온킹'의 일출 장면보다 진일보한 기술을 선보일 전망이다.

출연진 역시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 이소정을 비롯해 최고의 노래와 춤 실력을 갖춘 국내 톱 뮤지컬 배우 30명으로 구성됐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에서 '미스 사이공' 주인공 김역을 10년간 맡은 '이소정'이 선덕여왕역을 맡게 됐다.

이소정은 드라마 선덕여왕 OST '달을 가리운 해' 노래를 직접 부른 배우로 풍부한 감정과 호소력 짙은 그녀의 매력을 이번 공연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김유신역에는 중앙대학교 성악과 출신의 이상현, 비담 역에는 뮤지컬계의 신성 강태을, 춘추역에는 청춘 뮤지컬스타 김도영 등이 선정됐으며, 선덕여왕과 함께 가장 관심을 끄는 미살역에는 차지연이 캐스팅됐다.

차지연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미살역에 캐스팅됐으며, 카리스마 넘치는 뚜렷한 이목구비, 빼어난 노래실력으로 제작진으로부터 '최고의 미살'이라는 평을 받았다.

또한, 더블캐스팅으로 선덕여왕 역에 미모와 강력한 가창력의 유나영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천명 역에 김아선, 분노 역에 성가운, 미생 역에 라이온킹의 스카로 유명한 이기동이 출연한다.

이번 연출을 맡은 김승환 PD는 "서기 6백년 경, 유라시아 동쪽에 있는 신라인들은 진취적이며 긍정적이고 불굴의 의지를 지닌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다."라며 "그 유전자는 현대를 살아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뮤지컬 선덕여왕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특별한 성탄 찬양

영흥회력본부, 지역민 축제 열어

지난 15일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장도수) 영흥회력본부에는 해마다 열리는 영흥도 지역민의 특색있는 '성탄찬양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를 주최한 영흥기독교연합회는 영흥교회, 선재중앙교회 등 영흥면 지역에 소재한 총 11개 교회와 영흥회력본부(본부장 백남호) 신우회가 결성한 기독교 단체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매년 300여 명의 지역거주 신도들이 참석하여 성탄을 앞둔 기쁨과 서로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역의 여론을 움직일 만큼 단단한 결속력과 교우애를 과시해왔다.

이날 에너지파크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5회 성탄 찬양축제에는 5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하여 역대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연말에 개최되는 이 지역 행사로서는 최대 규모인 셈이다.

1부 예배 순서에는 선재교회 송중섭 목사의 사회로 개최하여, 이종상 목사가 집전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설교와 영흥회력본부 백남호 본부장과 임승복 영흥면장의 축사로 진행 되었다.

백남호 본부장은 축사에서 영흥회력본부가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대해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영흥회력에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부 성탄찬양축제 본 순서는 내동교회, 내오리교회, 즐거운우리집, 선재중앙교회, 영성교회, 영흥중앙교회, 영흥교회, 내리삼터기도원, 선재교회, 영흥회력신우회 등에서 각각 2명에서 30-40명씩 구성된 찬양팀들이 참가해 오랜기간 준비해 온 찬송가를 선보였다.

특히, 전국 찬양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마라나타 남성중창단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어 '불 밝히려 주의 군대' 등의 성가를 부르던



서 박력있는 울음까지 펼쳐 많은 갈채와 찬사를 받았다.

이외에도 안내, 청소, 시설물 준비, 주차안내, 선물지급, 간식준비 등의 행사 지원을 영흥회력본부 신우회를 비롯한 영흥 기독교연합회 회원들의 자원 봉사활동으로 진행하여 훈훈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영흥회력본부의 관계자는 "영흥면 지역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사나 축제 가운데 참석율과 결속력이 가장 높고 참가하는 신도들 대부분이 영흥과 선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영흥회력본부가 지역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도 이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영흥지역은 한국의 개신교 역사 124년(1885년)과 함께해 온 유서깊은 곳으로서 1893년 창립된 영흥교회와 1906년 창립된 내동교회를 비롯하여 11개 교회, 1,000여 신도가 있는 등 전통적으로 개신교의 교세가 큰 지역이다.



◆ 마라나타 남성중창단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어 '불 밝히려 주의 군대' 등의 성가를 부르고 있다.

국내 최초 아동화 전문 미술관, 에팡어린이미술관(경기 분당 율동 소재)에서는 2009년 마지막 전시로 'ITS INTERESTING!'展을 개최한다.

아동화가 가진 그림의 맛, 재료의 맛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전시는 에팡아동미술제 2009년 상위 수상작과 2004-2008년 대상작품을 중심으로 꾸며

에팡어린이미술관 'ITS INTERESTING!'展 개최

졌으며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러난 아이들 특유의 섬세한 생각, 자유로운 재료연구를 통해 찾아낸 자신만의 표현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를 감상하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다.

에팡어린이미술관은 에팡아동미술제를 통해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수작 아동화를 선정, 도록화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아동미술교육의 자료로서 가치있는 아동화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존하

는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에팡어린이미술관이 주최하는 비정기적인 전시회 등을 통해 전시되며 에팡어린이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에팡어린이미술관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모든 꼬마 예술가의 작품을 향후 30년간 소중하게 보관할 예정이다.

최상의 재료와 최선의 요리 질로서 고객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 맛 · 멋 · 가격 · 위생 · 대민족 - 주미정의 멋과 맛 서비스에 위해 보세요!

- 상건제, 가족모임, 각종단체모임 최적저 장소
- 250평의 넓은 공간 홀마다 형형색색 멋스러운
- 식후 비즈니스는 무료 커피숍에서 풍류 있게
- 80여명 동시수용 주차장은 언제나 여유만만

주미정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준의동 99-3 | 예약문의 (032) 682-8838